

2020년 12월 0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긍정적인 백신 이슈 불구하고 차익 매물 출회

은행, 에너지 실적 둔화 우려, 대형 기술주 독점 금지법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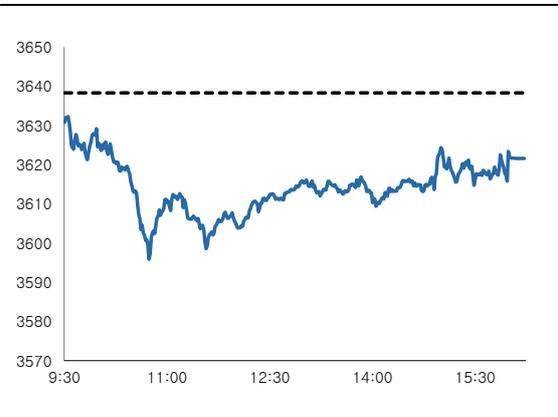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애플의 힘과 실적 장세 초입

미 증시는 모더나(+20.24%)가 코로나 백신 관련 추가 데이터 및 긴급 사용 신청을 발표했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여기에 하원의 독점금지법 관련 검토 완료 소식으로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부담을 주며 장중 한 때 1.5% 가까이 하락. 그러나 애플(+2.11%) 등 개별 이슈 기업들의 강세로 낙폭이 축소되며 마감(다우 -0.91%, 나스닥 -0.06%, S&P500 -0.46%, 러셀 2000 -1.91%)

지난 11 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럽 증시가 20% 내외 강세를 보이는 등 '백신 랠리'라 불리며 급등. 그러나 보니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에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올라온 모습. 시장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져 하락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 오늘은 모더나(+20.24%)가 백신 임상 관련 유의미한 추가 데이터를 발표하고 긴급 사용 신청으로 급등. 지난 11 월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백신 소식에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 특히 항공, 은행,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발표된 점이 관련 기업들의 하락을 확대

이런 가운데 대형 기술주도 약세. 이는 하원의 독점 금지 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의견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작업을 완료 했다는 소식에 기반. 우월한 상업적 통찰력 등을 통해 독점을 달성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아마존(-0.85%)의 경우 공급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다 자체 상품을 발표했고, 알파벳(-1.83%)은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희생시켰다는 평가가 나옴. 시장에서는 새로운 의회에서 이른 시일안에 강화된 독점 금지법이 발표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애플(+2.11%)은 상승했는데 아이폰 12 초기 판매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 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결국 독점 금지법이 강화될 수 있으나 기업 실적 등이 견고하면 성장을 멈출 수 없음을 보여줌. 이날 모더나의 백신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실적 둔화에 따른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주요 요인. 이는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
| KOSPI | 2,591.34 | -1.60 | 홍콩항성 | 26,341.49 | -2.06 |
| KOSDAQ | 886.11 | +0.06 | 영국 | 6,266.19 | -1.59 |
| DOW | 29,638.64 | -0.91 | 독일 | 13,291.16 | -0.33 |
| NASDAQ | 12,198.74 | -0.06 | 프랑스 | 5,518.55 | -1.42 |
| S&P 500 | 3,621.63 | -0.46 | 스페인 | 8,076.90 | -1.39 |
| 상하이종합 | 3,391.76 | -0.49 | 그리스 | 736.92 | +0.04 |
| 일본 | 26,433.62 | -0.79 | 이탈리아 | 22,060.98 | -1.30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백신 관련 종목 강세 Vs. 경기 민감주 하락

모더나(+20.24%)가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백신 효과가 94% 이상이라며 이날 FDA에 긴급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이는 화이자(+2.90%), 바이오엔텍(+12.96%), 노바백스(+10.99%) 등 여타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업체들의 강세를 이끌었다. 애플(+2.11%)은 아이폰 12 초기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투자의견 상향 조정 발표로 상승했다. 특히 5G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이끈 요인이었다. S&P 글로벌(+2.99%)은 HIS Markit(+7.43%)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였으나 세일즈포스(-0.74%)는 장 끝나고 슬랙(+5.43%) 인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했다. 줌(+1.43%)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이 후 6% 내외 하락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26.92%)는 GM(-2.71%)이 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기술만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급락했다.. 테슬라(-3.10%)는 폭스바겐의 소형 전기차 발표와 미국 규제기관이 차량에 대한 조사 발표로 하락했다. 이는 아마존(-0.85%), 알파벳(-1.83%), 페이스북(-0.30%), MS(-0.54%)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한 독점 금지 이슈를 자극했는데 하원 독점금지 위원회가 관련 검토를 완료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약세를 보였다. 아메리칸 에어라인(-5.67%), 델타항공(-1.97%)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JP모건(-2.76%), BOA(-2.86%)는 경기 위축 우려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카니발(-7.41%), 갭(-3.63%), 엑손모빌(-5.13%) 등 경기 민감주도 차익 매물이 출회 되었다.

주요 ETF

| ETF 종류 | 동락률 | ETF 종류 | 동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6.60% | 대형 가치주 ETF(IVE) | -0.99% |
| 에너지섹터 ETF(OIH) | -6.65% | 중형 가치주 ETF(IWS) | -1.36% |
| 소매업체 ETF(XRT) | -1.85% | 소형 가치주 ETF(IWN) | -2.83% |
| 금융섹터 ETF(XLF) | -2.07% | 대형 성장주 ETF(VUG) | +0.11% |
| 기술섹터 ETF(XLK) | +0.67% | 중형 성장주 ETF(IWP) | +0.76%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1.06% | 소형 성장주 ETF(IWO) | -0.77% |
| 인터넷업체 ETF(FDN) | +0.01% | 배당주 ETF(DVY) | -1.30% |
| 리츠업체 ETF(XLRE) | -0.87%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1.97%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1.19%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1.58% |
| 바이오섹터 ETF(IBB) | +1.23% | 미국 국채 ETF(IEF) | -0.07% |
| 헬스케어 ETF(XLV) | +0.27% | 하이일드 ETF(JNK) | -0.12% |
| 곡물 ETF(DBA) | -0.64% | 물가연동채 ETF(TIP) | +0.11% |
| 반도체 ETF(SMH) | +1.06% | Long/short ETF(BTAL) | +2.32%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274.42 | -5.37% | +2.69% | +26.57% |
| 소재 | 445.41 | -0.92% | +1.73% | +12.23% |
| 산업재 | 741.25 | -1.00% | +1.40% | +15.64% |
| 경기소비재 | 1,271.42 | -0.68% | +2.26% | +8.48% |
| 필수소비재 | 686.37 | -0.07% | +0.52% | +7.34% |
| 헬스케어 | 1,276.31 | +0.29% | +0.79% | +7.77% |
| 금융 | 462.45 | -1.92% | +2.59% | +16.75% |
| IT | 2,168.10 | +0.66% | +2.77% | +11.26% |
| 커뮤니케이션 | 215.31 | -0.77% | +1.94% | +9.54% |
| 유틸리티 | 317.73 | -1.47% | -1.23% | +0.26% |
| 부동산 | 225.82 | -0.81% | -1.18% | +6.79%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의 행보에 지속적인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5% MSCI 신흥 지수 ETF 는 2.62%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9.1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이 2 조 4 천억원 넘게 순매도를 하며 이를 주도 했다.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확대하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전일 2.4 조원 순매도 중 절반 가량이 증가 동시호가에 체결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결국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지수 조정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요인만으로도 해석하기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대부분 조정이 이어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리밸런싱과 함께 11 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점이 매물 출회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 미 증시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애플의 강세로 한 때 1.5% 가까이 하락하던 지수가 나스닥 중심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했다. 대체로 실적에 주목하며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한국 수출입 동향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견고하면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 호전 기대 속 매수세가 유입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11 월 한국 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 급증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높지만, 이들 지역의 재고 감소와 더딘 산업생산활동의 공백을 아시아 수출국들이 채워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양호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 전일 조정을 뒤로 하고 수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제유가가 OPEC 회담을 앞두고 3 개월 연장 합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장관급 공동 감시 위원회(JMMC) 의장의 사임 고려 소식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수출입 결과에 따라 보험권에서 출발한 이후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주택지표 둔화

11 월 시카고 PMI 는 전월(61.1)이나 예상(59.2) 보다 둔화된 58.2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주문(65.0→60.0), 생산지수(62.1→60.8) 등이 부진했고 고용지수(43.2→44.0)은 개선되었다.

10 월 미국 잠정 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1.1% 감소해 지난 달 발표(mom -1.9%)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예상(mom +2.0%) 보다는 부진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제한적인 변화

국제유가는 OPEC+ 회담을 앞두고 장관급 공동 감시 위원회(JMMC) 의장이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3 개월 연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개별 국가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축소했다.

달러화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의회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은 달러 약세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약세에 따른 반발 심리 또한 높아 소폭 상승으로 전환 했다. 파운드화는 이번 주 중요한 브렉시트 무역협상에 대해 영국 환경부 장관이 좋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화, 러시아 루블화 등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폭이 컸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 더불어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의 약세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미 증시가 장 후반 애플의 힘으로 낙폭을 축소하자 국채금리 또한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채권시장은 변화가 제한 된 가운데 채권시장 주변 여건에 따라 단기물이 하락하고 장기물이 상승하는 등 소폭 변화를 보이며 마감 했다.

금은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 및 모더나 백신 데이터 발표 영향으로 0.4%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제조업지표 개선 효과로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4% 하락했다.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45.34 | -0.42 | +6.88 | Dollar Index | 92.004 | +0.23 | -0.54 |
| 브렌트유 | 47.88 | -0.77 | +4.00 | EUR/USD | 1.1927 | -0.30 | +0.73 |
| 금 | 1,780.90 | -0.40 | -5.18 | USD/JPY | 104.4 | +0.30 | -0.11 |
| 은 | 22,593 | -0.20 | -7.75 | GBP/USD | 1.3328 | +0.13 | +0.05 |
| 알루미늄 | 2,045.00 | +2.33 | +3.62 | USD/CHF | 0.909 | +0.30 | -0.43 |
| 전기동 | 7,580.00 | +1.07 | +5.61 | AUD/USD | 0.7344 | -0.58 | +0.80 |
| 아연 | 2,790.50 | -0.16 | +2.23 | USD/CAD | 1.2995 | +0.05 | -0.67 |
| 옥수수 | 426.00 | -1.79 | -0.53 | USD/BRL | 5.3583 | +0.40 | -1.39 |
| 밀 | 585.00 | -3.47 | -2.42 | USD/CNH | 6.5849 | +0.14 | +0.05 |
| 대두 | 1,168.50 | -1.95 | -1.06 | USD/KRW | 1106.50 | +0.30 | -0.35 |
| 커피 | 123.30 | -0.72 | +4.45 | USD/KRW NDF 1M | 1109.19 | +0.35 | -0.4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 미국 | 0.844 | +0.65 | -0.99 | 스페인 | 0.079 | +2.30 | +1.00 |
| 한국 | 1.662 | +2.20 | +8.00 | 포르투갈 | 0.030 | +2.00 | +0.80 |
| 일본 | 0.032 | +0.10 | +2.00 | 그리스 | 0.633 | -1.40 | -3.10 |
| 독일 | -0.571 | +1.70 | +1.00 | 이탈리아 | 0.625 | +3.20 | +0.20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